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랑가라 컬리지는 평지이고 빌딩들이 모두 쾌적하고 넓습니다. 서브웨이, 팀홀튼스(카페), 스타벅스 등 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던 빌딩엔 팀홀튼스가 있었고, 다 같이 카페테리아에서 점심도 먹고 도넛이나 햄버거 등을 사먹거나 편의점에서 음료수도 사먹을 수 있습니다. 넓은 평지에 잔디밭과 나무들도 있고 조류나 청설모 같은 동물들도 종종 보여서 평화로웠습니다.</p> <p>걸어서 2-3분 거리에 랑가라 스테이션이 있어서 스카이트레인(전철)을 타고 어디든 가기에 편리합니다. 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거장이나 역 근처 버정에서 버스 타면 메트로타운이나 다운타운 등 가기 편리해서 좋았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일단 첫 날에 여러 대학에서 온 학생들을 모아놓고 듣기시험을 치룹니다. 시험을 보고 그 성적으로 반을 나뉘요. 반마다 수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반은 매 수업 마다 3-4명씩 팀을 나눠 토론형식으로 진행했어요.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하는 활동일 때는 6-7명으로 나누기도 했구요. (저희반이 학생이 제일 많았어요) 저희 반은 과제가 많지 않았어요. 첫날에 활동지가 들어있는 바인더를 나눠주는데 항상 강의실 의자에 두고 다녔어요. 과제는 바인더 활동지의 몇 장?? 숙제 있는 날이 별로 없었고 다른 반은 저널 쓰는 걸 숙제로 내줬는데 저희는 그냥 저널 쓰는 날에 아침에 15분 정도 시간 주고 쓰라했어요. 저희 반 강사님은 좀 깐깐하셨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를 많이 아껴주셨고 수업도 재밌게 진행해서 흥미로웠습니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수업 외 액티비티는 디스커버 밴쿠버, 카약, 휘슬러트립, 아쿠아리움, 밴쿠버뮤지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단 discover 밴쿠버는 계속 걸어다니기 때문에 편한 신발 무조건 신어야 하구요, 밴쿠버의 여러 유명한 곳을 가이드 분과 함께 돌아다닙니다. 한 5시간은 걸은 거 같아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만큼 기억에 남았어요. 이때 점심은 홈맘이 싸주신 도시락 먹었습니다. 저는 카약이 제일 재밌었어요. 이것도 한 한 시간 안 되게 카약을 타는데 전 체력이 좀 딸렸습니다. 그래도 정말 카약타는 동안 경치가 너무 예뻐서 감탄하며 탔어요. 준비물에 여벌 옷 챙기라 했는데 그렇게 옷이 많이 젖진 않아서 가져갔는데 안 갈아입고 버스타기 전에 말렸어요. 카약타고 남은 시간에 거기서 파는 젤라또랑 허니도넛 먹었는데 젤라또가 진짜 맛있어요! 아쿠아리움이랑 밴쿠버뮤지엄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활동지 조금 작성하는 건데 그냥 흥미로운 정도...?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준비물 딱히 없고 아쿠아리움에선 뭐 사먹을 데가 많아서 돈 가져가도 좋습니다. 휘슬러 트립은 그 날 비가 와서 풍경을 제대로 못봤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곤돌라 타고 올라갔다가 경치보고 사진 찍고 자유롭게 있다가 점심 먹었습니다. 모든 액티비티가 필수적인 추가용은 없고 간식이나 밥, 기념품 사기 원하는 사람만 추가적인 돈 가져가면 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날씨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거긴 여름이어도 22도 이상은 안 올라 가기 때문에 긴팔 입고 다닐 때가 많았고, 밤이랑 아침엔 많이 쌀쌀해서 종종 남방 챙겨 다녔어요. 가끔 비가 왔는데 대부분 맑은 날씨여서 하늘이 정말 예뻐했습니다.</p>
안전	<p>밴쿠버는 홈리스가 정말 많아요. 다운타운이나 역 근처, 그냥 거리에도 되게 많은데 처음 학교에서 안전교육 받을 때 홈리스가 따라올 수도 있다 했는데 그런 적은 없었고, 대부분 그냥 앉아있어요. 소매치기나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교육은 많이 받았으나 다행히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p>
숙소	<p>홈스테이는 정말 사람마다 극과 극입니다. 저의 홈맘은 정말 친절하셨고, 저는 홈맘이랑 대화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밥 좋아한다 해서 일부러 밥도 해주셨고, 기념하라고 밴쿠버 대표 하키 팀의 티셔츠와 지갑도 선물해주셨어요! 집은 반지하가 있는 1층집이었는데, 저는 반 지하 방을 썼어요. 반 지하라서 밤에 잘 때 좀 춥긴 했는데 참을만해서 딱히 불편한건 없었어요. 샤워시간은 정해져있었어요. 원래 밴쿠버는 온수탱크를 사용해서 샤워시간이 짧아요. 화장실 안에 샤워부스가 따로 있고 물기를 닦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편했지만 저는 지하화장실 혼자 써서 그건 편했어요.</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학교식당 () 외부식당 (O)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점심은 주로 홈맘이 싸주신 점심을 먹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홈맘이 싸주신 도시락이 입에 안 맞아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입에 안 맞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버리는 음식도 아깝고 사먹는데 돈도 드니까요. 저녁은 며칠 빼고 거의 외식했어요. 친구들과 유명한 맛집 찾아서 외식하기도 하고, 웬만하면 다들 저녁은 밖에서 사먹습니다. 3주 동안 조금이라도 더 밴쿠버를 경험하고 싶어서 통금시간 다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을 사먹게 되더라고요. 밴쿠버는 여기저기 맛집 정말 많습니다. 식당 문화도 경험해보기 추천드려요.</p>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p>빅토리아 아일랜드 빼고 웬만한 곳은 가기 쉽습니다. 빅토리아는 페리타러 가는 데 한시간 반, 페리타고 한시간 반 편도가 3시간이라 주말에 마음 먹고 가야 하구요, 다운타운, 메트로타운, 예일타운, 맥아더아울렛 등등 스카이트레인이거나 버스를 학교 근처에서 타면 금방 갑니다. 한국처럼 지하철 노선이 복잡하지 않아서 교통이 정말 편리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통카드처럼 컴퍼스 카드를 제공해주는데 리치몬드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거의 1존 컴퍼스 카드를 줘요. 스카이트레인 맵 보면 1존2존3존이 있는데 저녁 6시 전에는 2존3존 갈 때 추가비용 있어서 따로 충전하면 되고 6시 이후랑 주말에는 다 1존 가격으로 취급되어서 추가비용 없이 편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쇼핑	약 50만원	화장품, 옷, 가방 등
음식	약 85만원	간식, 카페, 저녁외식
기념품	약 10만원	과자, 메이플 시럽, 영양제 등
액티비티	약 5만원	개인적인 액티비티 비용
합계	15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밴쿠버는 여름이지만 쌀쌀해서 긴팔, 긴 바지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저는 추워서 아우터도 샀어요. 그리고 캐리어는 큰 거 하나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적당한 거 2개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뭘 선택하든 여유를 두고 챙겨가세요. 저는 쇼핑을 많이 해서 짐이 많아 무게 맞추려고 고생했습니다. 밴쿠버를 폭넓게 즐기고 싶다면 여기 저기 많이 알아보는 거 추천드려요. 음식점이나 액티비티 같은 것들요. 그리고 한국 음식 무조건 가져가세요. 뭐든 잘 먹는다 자부해도 3주간 타지 음식만 먹는 건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컵밥3개에 김이랑 김치, 고추장 가져갔는데 햇반이랑 컵라면 안 사간거 정말 후회했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간의 어학연수는 영어실력을 늘리기에 최적의 조건이 아닙니다. 문법이나 어휘를 배우러 간다고 보단 외국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초점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외국인만 보면 덜덜 떨며 말 한마디 못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던 것과 영어로 주문하고,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고, 물건을 사고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회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발음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 물론 어떤 면에서든 발전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회로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 최선을 다해서 영어를 향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밴쿠버 사람들은 정말 다들 착하고 양보가 몸에 배어있습니다. 정말 소수 빼고? 거리도 깨끗하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그냥 걷기만 해도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옷은 메트로타운이나 맥아더에서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데 음식은 대부분 비쌌습니다. 팁도 적어도 15%이상은 냈었고 물가가 그냥 좀 비쌌습니다. 근데 팁을 받는 만큼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3주가 정말 짧게 느껴질 만큼 저는 이 프로그램으로 너무 소중한 경험을 하였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와서 그런지 내가 너무 작은 것에 걱정하고 불평했던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 다짐하게 되는 거 같아요. 같이 간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졌고 일본인들과 섞여서 반이 되었는데 다들 너무 착했고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한국에 와서도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일본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소중한 친구들도 사귀고 행복한 3주였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p>우리 반(마지막 날)</p>	<p>우리 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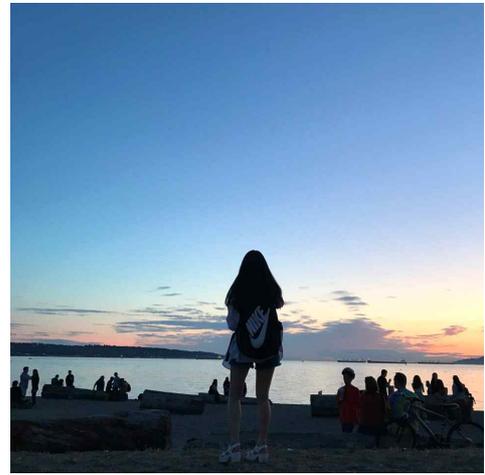
스탠리 파크 주변



카약



예일타운 공원



잉글리시베이 비치